

청년층 실업 문제와 교회의 역할

김태황*

논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가 청년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매개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제안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공공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조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고용자와 근로자의 연계망을 자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민간부문의 제3자적 노력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교회는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 풀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노동력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회는 구성원들에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교회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되며, 근로자로서도 일자리 나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 연합체는 敎産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기독교인 기업과 개인을 연계시킴으로써(networking) 가칭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년 근로자의 경력과 근로 체험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청년층 선교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청년 실업, 실업 대책, 교회,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센터, 교·산 협력, 청년 선교

* 천안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I. 문제제기
- II.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 III. 청년층 고용 및 실업의 구조적 문제점
- IV. 청년층 실업 대책과 교회의 역할
- V. 결론

I. 문제제기

청년 실업 문제는 노동력 수요-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은 항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동 수요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층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테면, 2004년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수는 1995년에 비해 52.6%가 증가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노동의 사회적 확대 재생산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업 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청년층 실업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는 표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직업 생애 비전이 불명확하고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 불확실한 측면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적 실업자까지 고려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복합적이고 고착화된 구조를 나타낸다.

2005년 9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2%로(실업자 수 33만 6,000명)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 3.6%의 2배에 달한다. 200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수준 2.8배는 OECD 회원국 평균 1.9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청년층 실업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반증한다(OECD, 2005).

청년층 실업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2003~2005년 사이 3조 5천억원 규모가 투입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5). 기업의 생산방식과 고용방식의 변화와 연계된 청년층 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고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기적인 청년층 실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고용 및 실업 문제는 국민경제적 관심사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노동)관에 따라 공공 대책의 실효성과 과급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 활동은 선교와 구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현대 사회와 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사고와 행동 양식의 패러다임을 부단히 변화시키고 있다. 선교와 구제의 방식과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다양화되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바른 노동행위는 기독교인의 삶에 본질적인 요소이다(김태황, 2004). 따라서 건전한 노동력의 재생산 구조를 창출해 나아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일부가 되리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청년층 실업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교회가 기독교적 노동관에 근거하여 국가적 실업 대책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II.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1. 수요와 공급의 총량적 변화

청년층 고용과 고실업률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준거는 노동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강조하는 논지와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 등 고용 관련 제도들의 운용 방식에서 실업의 발생 원인과 대응책을 제시하려는 논지로 대별된

다(전병유 외, 2005). 전자의 논지에 따르면, 청년층 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의해 유발되는 실업 문제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 여건의 조성,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 비대칭적인 정보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조절해 줌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근로자의 후생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나 고용 감소를 유발하여 역설적으로 실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선택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 복지 제도가 한편으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자에게 비용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기능과 제도적 장치가 내부 상호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므로, 청년층의 고용-실업의 길항적 구도는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된다.

청년층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세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499만명으로 2000년 531만명에 비해 6.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5.8% 증가한 양상과 대조적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이 2002년에 감소하였다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증감폭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2004년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2002년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 이러한 양상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반감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청년층 인력의 공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청년층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학 졸업자수는 정원 자율화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육 수준의 향상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로 보인다. 2003년까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졸업자수는 10년 동안 1.5배가 증가하였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2002년까지 점증세를 나타냈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995년 수준보다 더 낮은 66.2%를 기록했다.

<표 1>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22,134	22,471	22,921	22,957	23,417
실업률	4.4	4.0	3.3	3.6	3.7
청년층	5,308	5,227	5,161	5,007	4,990
실업률	8.1	7.9	7.0	8.0	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졸업자	323,739	437,987	472,674	483,966	504,915	493,944
취업자	186,133	264,331	290,225	302,770	309,166	293,105
취업률	66.6	68.2	68.2	70.8	69.4	66.2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세계 전체의 청년층 인구 전체에 대한 청년층 고용 인구의 비율은 47.0%로 1993년 51.9%에 비해 약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년층 고용정책의 영향으로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동유럽, 아

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청년 고용률 저하 현상은 두드러진다(ILO, 2004). OECD 회원국들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회원국 전체의 2003년 15~24세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50.4%로 1990년에 비해 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2003년 34.0%로 회원국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병역 의무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인 것은 교육 과정 이후 자발적인 노동시장 편입 지체 현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2. 수요와 공급 방식의 구조적 변화

청년층 인력의 수급 구조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첫째, 청년 고용 문제가 증가하는 실업률과 유희화율¹⁾의 이중적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증가 현상뿐만 아니라, 청년층 인력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병희(2003)는 한국 청년층 인력이 학교에서 직업 현장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OECD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약 25% 길며 고졸자보다는 대졸자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청년 고용 문제를 비재학 비경제활동 상태의 인력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정인수·김기민(2005)은 2004년 3/4분기 현재 청년층 인력의 유희화율이 17.6%에 이른다고 산정하여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의 고용구조는 특히 경기 침체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1) 유희화율은 실업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체감 실업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지표로서 $\{(\text{실업자수} + \text{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수})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으로 계산한다.

대응력을 나타낸다. 1995~2001년 사이 경기 침체기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고 일자리 소멸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병희, 2003; 안주엽·홍서연, 2002).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장년층 인력이 청년층 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은 청년층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셋째, 청년층 인력에 대해서도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 격화와 국내 경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인력은 경력 관리와 숙련 향상을 위해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 노동 수요 발생시에는 경력직 근로자 채용률이 높고 수요 소멸시에는 신규 근로자 채용률이 더욱 저하하는 비대칭 구조를 나타낸다.

넷째, 청년층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도 노동구조의 특징적인 동태적 현상으로 고찰된다(이병희, 2003). 학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비정규직으로 출발할 경우 종사자 지위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고용구조가 청년층 인력의 비정규직화를 고착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김안국, 2003). 이를 테면, 신규 청년 인력이 비정규직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종사자 지위를 전환하고자 하여도 기업은 정규직 경력 근로자를 선호하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누적되는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III. 청년층 고용 및 실업의 구조적 문제점

1.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

청년층 고용과 실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일자리 정착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표출된다. 청년층 인력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 준비 비경

제활동인구를 합한 실질적인 실업 규모는 공식적인 실업자 수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인수·김기민, 2005). 이러한 광의의 취업 애로 청년 인력이 노동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개인적 측면과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동시에 고찰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병희, 2003; 정인수·김기민, 2005), 취업에 애로를 인식하는 자발적인 실업자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33%는 실업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조건 불만족을 지적하였으며, 17~20%는 전공 및 경력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숙련도와 일치하지 않은 사유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 및 기술 경험의 부족도 7% 수준을 차지했다. 첫 일자리 획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도 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취업 애로 요소들은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에서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노동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상이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노동력 공급 여건과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력 수요 여건이 구조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OECD 통계 분류방식에 의한 한국 청소년 및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10.0%로 회원국 평균 13.4%(2004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에 고용률은 31.2%로 전체 평균 43.2%보다 현저히 낮으며 미국(53.9%)이나 영국(60.1%)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40.0%)에 비해서도 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회원국 전체 평균은 49.9%이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34.7%에 머물렀다(OECD, 2005). 이는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에서 수급 불일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 속도의 둔화와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용 흡수력의 저하 경향도 청년층의 시장 진입 속도를 감소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계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10억원 투자에 대한 취업자수는 1990년 24.4명에서 2000년 12.2명 수준으로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04).

한편, 청년층 인력의 시장 이행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탐색 기간의 장기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교육 비용의 증대,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확대, 근로여건의 질적 저하 등 부차적인 사회적 부담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노동 공급 및 수요 구조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개선책의 활용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청년층 근로자가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 불안정, 비정규적인 고용 형태, 경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항시적인 잠재실업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불안정적이고 비대칭적인 취업 여건은 경력 개발을 약화시키면서 실업 증대와 취업 의지 약화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첫째, 상술한 시장 이행 기간의 장기화는 청년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 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여건을 임시적으로 받아들일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첫 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정착 과정에서 불안정적인 여건에 직면하게 된다. 이효수(2002)와 김안국(2003)의 실증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취업 청년 근로자의 첫 직장 경험은 대부분 영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었으며, 전공 학습 수준과 직무 간 불일치를 경험한 이들이 직업 교육 훈련의 부족으로 직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일자리 기대 수준의 불일치는 고용 이후에도 잦은 노동이동이나 노동 시장 유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현상은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 이동은 정규직 간 일자리 이동에 비해 현실적으로 더 큰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나

타낸다(이효수, 2002). 기대 수준의 불일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 먼저, 청년 근로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과 전공에 비해 근로여건과 일자리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심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식불일치(cognitive dissonance)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불일치이든,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든, 개별 견해의 일반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또는 과거 경험의 결과이든 간에 심리적 불편함이 초래되고 나아가 이를 해소시키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²⁾ 인식불일치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기대 수준의 불일치는 노동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청년 근로자가 노동수요의 질적 측면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평가하거나 구직하게 됨으로써 첫 취업 후에도 불안정적인 고용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는 취업정보 전달체계를 수요와 공급의 현실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산학이 연계된 현장 근로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정보가 전달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경력개발과 관리구조의 취약성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노동수요의 감소와 인력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은 청년층 인력에 대한 직장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청년 실업자에 대해 근로조건 불만족 사유가 되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미확보라는 양면성을 초래하게 된다(정인수·김기민, 2005).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일자리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장래 직업비전과 부합되는 경력관리 또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취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되므로 취업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다.

2) 페이스팅거(1957: 14)에 의하면, 개인이 “두 요소를 따로 고려할 때, 한 요소의 대상(代償)이 다른 요소로부터 도출된다면, 이 두 요소는 불협화적인 관계에 놓인다. 정형화시키면, 만약 非-x가 y로부터 비롯되면, x와 y는 불일치한다.”

IV. 청년층 실업 대책과 교회의 역할

1.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정부의 청년 실업 종합 대책 및 고용 촉진 대책은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 취업 지원, 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충원, 창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진로 및 직업 지도 강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직업 교육훈련 체계 혁신 등을 시행하고, 노동시장의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취약 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개선, 청년 취업 지원 기능 강화, 직업 및 고용 정보의 생산과 보급 확대, 청년 실업 대책 성과 보고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교육 인적자원부 외, 2005, <부록> 참조).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대책은 직장 체험 활성화,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 취업 인턴 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집약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업이며,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이나 전문인력 채용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 신규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 인력 공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은 수요 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사업은 대부분 신규로 시행되거나 기존 사업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직업 정보, 중소기업 고용 정보 및 청년 실업 대책 종합 정보 제공 체계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2005년 중 1만9,000명을 대상으로 2,389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와 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충원의 경우에는 각각 6만2,500명과 3만200명을 대상으로 1,935억원과

1,5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1,117억원으로 8만2,3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정부의 청년 실업 종합 대책 및 고용 촉진 대책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두드러진다.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직업 및 고용 정보 시스템의 확충은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청년층 인력의 시장 접근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청년 인력의 실질적인 공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있다. 취업을 향상을 위한 대학의 지구 노력을 유도하고,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산학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특성화 실업계 고교 육성과 어학 및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기존 직업 훈련 체계를 보완하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책에 해당된다. 셋째, 노동수요의 창출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제공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해외 취업을 지원하더라도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민간 기업이 지원책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실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별 중복 투자와 취업 연계성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5). 이를테면, 부문별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주로 공공기관의 지식 및 정보의 DB화와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화에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실업 대책에 의한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민간부문의 고용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 effect)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직장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 노무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들 간 중복 투자에 의한 비효율적 사업 운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개선

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별 기업과 개인 근로자가 고용 촉진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2. 교회의 노동시장 참여 역할 모색

(1) 전제사항

노동시장의 수급 조절과 고용 창출은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규모는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 관건은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의 동기부여와 실천의 유인력이다. 즉, 상술한 청년층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조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고용자와 근로자의 연계망을 자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민간부문의 제3자적 노력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3자는 고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고용 및 경력 창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고용 안정센터’를 통한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 기능만으로는 서비스 공급력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보완 기능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 풀을 확보하고 있다. 교회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먼저 기독교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자로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취업계수의 감소는 불가피한 고용 감소 여건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의 나눔과 연계되어야 한다. 기독교인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양보와 합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부자-내부자 모델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의 갈등관계가 지속되

는 상황에서는 내부자(취업자)와 외부자(실업자) 간 임금 격차는 확대 또는 유지될 수밖에 없고, 외부자의 내부화, 즉 실업자의 일자리 확보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Summers, 1988). 교회의 부분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동료의식의 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교회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성경적 논지

성경은 창조 시점에서부터 인간의 일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창 1:28). 인간은 범죄 이전에 이미 자연에 대한 관리자로서 일할 것을 명령받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창조된 생명체의 본원적 활동이다. 루터는 “인간은 타락 이전에도 여가를 즐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지적하였다(김승욱유헤신 (2002), p.30에서 재인용). 성경에 나타난 노동의 의미는 인간이 근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즉,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일(노동)을 통해 가시화된다. “일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수단이다”(Hay, 1989: 84).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요 4:34).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요 6:29)이라고 가르치셨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노동은 재능 발휘를 통한 소명 이행과 자기실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루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사실(출16장),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마25:14-30), 사도 바울의 만인 노동 명령(살후 3:6-12)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개인마다 주어진 노동행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김태환, 2004).

인간의 일할 권리와 의무는 공동체(교회)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공동체

가 일자리를 제공해 온 방식은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단계로, 자연 상태의 일자리 제공이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일할 의무를 부여하시면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셨다(창 2:15). 인간이 종일토록 일하는 수고가 자연 현상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시 104:23)은 일자리가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통해 주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2단계로, 공동체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제도적으로 주어졌다. 고대사회에서 땅은 가장 소중한 산업 기반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족 수에 비례한 땅의 배분은 일자리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다. 또한 희년제도도 개인적인 노동 과정과 결과의 차이에 따라 산업여건의 격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은 보장해 주려는 사회 구조적 장치의 일부로 이해된다. 초대 교회 시기의 만인 노동 명령은 경쟁적인 노동력 공급 여건보다는 완전 고용 상태의 시장 여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천국의 비유(마 20장)에서 예수님이 오후 5시에도 동일 임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공동체의 시혜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단계로, 공동체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 또는 피 부양 상태에 처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실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불특정한 고아, 과부 또는 나그네를 위해 개인 또는 집단 노동의 생산물을 별도로 예치해 두라는 집단적 협약(신 24:19-22)은 공동체의 의무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가 구성원들에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동시에 일할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다만 교회의 영역과 노동시장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에 국한되는 노동시장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교회의 청년 고용 촉진 참여 방안

(1) 교회의 직업의식 교육 활성화

청년 실업 대책의 실효성을 부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직업의식 교육의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몸’은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들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교육을 위한 풍부한 인적자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교육 시스템은 개별 교회의 자원들을 연합하여 범교회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학 또는 휴가 기간을 이용한 청년층 대상 수련회를 산업 탐방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성과 직업의식 훈련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교회의 근로 체험 및 경력 형성 프로그램 개발

교회 공동체는 근로 체험 및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층 인력의 취약한 근로 경험과 경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을 연계하여 자율적인 근로 연수, 파트타임 근로, 인턴쉽, 임시 계약직 근로 등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차원이 아니라 경력 형성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공공고용안정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근로 체험은 전문 분야로 세분하여 경력 형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기존 실업 대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 단순노무 직종 중심인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분 전문 분야별 근로 체험 프로그램의 공급과 수요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나 참여 교회가 확대될수록 점진적으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아동, 노인,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봉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청년층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들이 단편화되어 있고 실무 교육의 부족으로 취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기업체와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실무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교

계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관도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점으로 인해 청년 실업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래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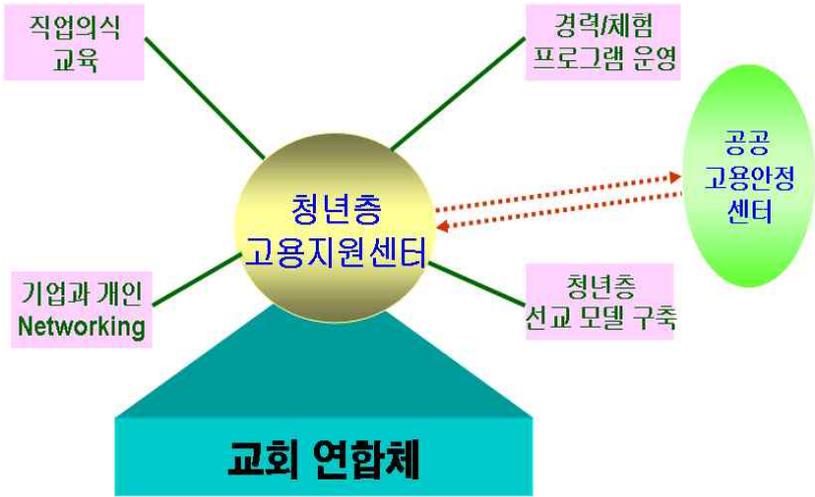
(3) 교회와 기독교인 기업체 간 교산 협력 체계 강화

기본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 기업체 간 교산 협력 체계를 강화하지는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인 일정 규모의 청년층 인력 그룹과 기독교인 기업체를 일대일로 연계하여 이러한 체험 및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대일 대응 연계 방식은 산업 부문 선호도와 기업 풀(pool)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인턴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수준에서 교회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거나 무급화를 통해 정착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적 경제관과 직업관에 대한 선행 교육이 뒷받침되어 프로그램의 본질과 목표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4) 교회 연합체로서 '청년층고용지원센터'(가칭) 운영 방안

이와 같은 교회의 부분적인 노력은 개별 교회 차원이 아니라 교회 연합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칭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센터는 교산 협력 체제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수급 정보를 매개하고 청년층 대상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재정은 교회 연합체의 부담으로 하되 운영 인력은 청년 자원 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봉사자에 대한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청년층고용지원센터'는 청년층의 가장 민감한 관심사인 취업 문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선교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이 안정되고 확대될 경우 청년 해외 선교단을 구성하여 기존 선교단체와 공동으로 해외 선교 현장 파견 인력을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 교회 연합체의 가치 '청년고용지원센터' 모형

V. 결론

청년층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회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전 10:23). 교회의 노동시장 참여를 구체화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교회 연합체를 대형 교회가 주도해 온 기존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소형 교회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나눔의 행위가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세속화되어 가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공공부문에까지 참여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실업 문제를 기독교인 대상으로 국한시킬 경우 교회의 배타성을 지적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 기업이 경영의 투명화를 우려하여 참여를 기피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신앙 훈련과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 근로자들이 왜곡된 시각이나 지나친 윤리적 기준으로 기독교 경영인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일자리 나눔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올바른 경제관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직업 활동을 보편화시키고,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에 대해 봉사해야 하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직업의식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층 대상 수련회를 산업 탐방과 산업체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청년층에 대한 산업 현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근로 체험과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와 기독교인 기업체 간 교산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대일 체험을 확대하고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청년층고용지원센터’를 교회 연합체로서 운영함으로써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교회의 노동시장 참여 방안을 모색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인 기업인들과 청년 근로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敎産 협력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이므로 다양한 시행 방안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질 수 있다.

<부록> 청년 실업 종합 대책 및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총괄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이행 사업
노동 시장 공급	1. 진로 및 직업 지도 강화	초·중·고 재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강화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보급 현직교사 연구 확대 직업지도인력 pool 구성 진로·직업지도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 고용안정센터와 학교간 협약체결 직업지도행사에 학부모·교사 참여
		대학생 대상	연수 체험 확대 및 내실화 기업 CEO 강의 확대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IT인턴쉽 지원 사업 신진연구자 연수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지원 문화산업 청년 인턴 채용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 체험 농업인턴쉽 지원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협의체 구성	직업지도 자료 학교 보급 확대 및 비 치·열람 중소기업 인식 제고 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국가 진로 직업 지도 협의회 구성 지역 진로 직업 지도 협의회 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이행 사업
노동 시장 공급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보상 시스템 마련 -취업률을 대학 평가에 반영
		대학 교육과정모델 발굴·보급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육과정의 수요 적합성 평가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공학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 -학교기업 확대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계약학과 제도 운영 확대
		대학 구조개혁추진	
	3. 직업교육 · 훈련체계 혁신	직업훈련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인적자원 개발 추진 -성장동력산업 중간 기술인력 양성 -기능대학 체제 전환 -이동식 직업훈련 및 온라인 교육 확대 -근로자 훈련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정부 위탁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 -제대 예정 사병 취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IT 중소벤처 기업인력 지원 -대학생 영농 창업 연수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이행 사업
노동 시장 공급	3. 직업교육 · 훈련체계 혁신	수요 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특성화 실업계 고교 육성 -취업협약 체결 등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 실습실 지원 - 어학·실무 교육 시스템 구형
	4. 취약청년층 개인별종합 취업서비스		
	5. 청년취업 지원 기능 강화		대학 취업지원 부서 확충 지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고용안정센터 육성 정부 위탁 훈련
	6.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고학력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가칭) 청년 work-net 구축 맞춤식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보 제공 강화 추진 직업 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청년 패널 확대 노동시장 정보자료 생산·보급 고용 안정 정보망 운영
	7. 청년 실업대책 성과 제고		청년 실업대책 종합 정보 제공 청년 실업대책 홍보 강화 청년 실업대책 사업간 창구 연계 청년 실업대책 사업 성과지표 개발

분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이행 사업
노동 시장 공급	8. 단기 일자리 제공		지식정보 자원관리 사업 국가 기록물 정리 사업 구인업체 개척 사업 문화 원형 창작 디지털 콘텐츠화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군부사관 인력 확충 행정정보 DB 구축
	9. 해외 취업 지원		전문직 해외 취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요원 양성 청년 무역인력 양성 KOICA 개발협력단 사업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파견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10.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 교대제 전환 지원금 장기 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11. 창업지원		창업교육 강화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뉴패러다임 확산

자료 : 제4차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자료, 2005. 1.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제4차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및

-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의결 안건, 2005. 1.
- 국회예산정책처 (2005), “정부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성 분석 평가”.
- 김승욱·유해신 (2002),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격적 노동관”, 『신앙과학문』, 7(1), 9-37.
-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 김주섭 (2005),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한국노동연구원, 1-29.
- 김태황 (2005), “교회의 시장론에 관한 고찰”, 『기독교경영연구』, 2(1), 기독교경영연구원, 21-40.
- 김태황 (2004), “자본주의적 노동 행위에 대한 재 고찰”, 『백석저널』, 2, 백석기독교학회, 177-200.
- 노동부 외 (2003),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 2003. 9. 23.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효수 (2002),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경제학연구』, 50(1), 243-274.
- 전병유 외 (2005),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김기민 (2005), 『청년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고용동향”,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2004),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 효과”, *Monthly Bulletin*, 2004. 2.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y, Donald A. (1989), *Economics Today*, Leicester:InterVarsity Press,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서울:IVP, 1996.

ILO (2004),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ILO.

OECD (2005), *Employment Outlook*, OECD.

OECD (2004), *Employment Outlook*, OECD.

Stott, John R. W. (1990),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2nd ed. London:Marshall

Pickering,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Summers, L. H. (1988), “Relative wages, efficiency wages, and Keynesian unemploy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2), pp.383-388.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http://desi.kedi.re.kr>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Abstact

Youth Unemployment and Role of the Church

Tae Hwang Kim*

The study aims to suggest a desirable role of the church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youth labour supply and its demand in the marke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becomes more and more serious. Th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are important to make an efficiency of the public unemployment measures. But it's not simple to attract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firms. Accordingly, it's worth to reinforce the voluntary network between the individual employer and the labourer by means of the tertiary intermediary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general church contains an immense pool of the labour supplier and demander, it has a good condition to offer the qualified labourers and jobs. The church should teach the members to fulfill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nd, at the same time,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them a foundation for their job activitie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it needs at first the changing mind by which a christian businessman and a christian labourer are willing to take place in the job offering and the job sharing programs. By networking and reinforcing the church—firm

* Professor of Cheon An University

cooperation, the church unions could organize so called 'Youth Employment Supporting Center' and extend effectively the opportunities that the youth would have more labour experiences and career. Finally, the church could develop this center as a new mission model for the youth.

Key words : Youth unemployment, Unemployment
measures, Church, Job creation,
employment center, Church-firm
cooperation, Mission for the youth